

재안파종회장친목회 7개월 만에 회의 개최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계동) 열네 번째 회의가 7개월 만인 5월 19일 저녁 7시 안동시 평화9길(평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운한정식' 식당에서 개최하였다. 격월제로 개최하던 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1년 11월 27일 모임을 가진 이후 7개월 만에 처음 가졌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은 권계동 전목회장을 비롯하여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인탑,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두 고문, 권주연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세복 복야공파종회장,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 권순현 전 별장공파종회장, 권오준 부정공파종회장, 권중근 시중공파종회장,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 권영건 안동권씨종보 보도부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회장단,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청장년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권광택, 김대진, 손진걸 도의원 후보, 권기윤, 권기탁, 권민성, 조달희, 안유안 시의원 후보 등 많은 예비후보들이 참석하여 지방선거의 열띤 경쟁을 볼 수 있었다.

이날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권정달 전 총

선, 그 중 권기창 안동대 교수(정조공파)가 국민의힘 당의 공천을 받았는데 후보자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많이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권숙동 종친회장도 "경선을 거쳐 뽑힌 권 교수를 결정적인 시기에도 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인탑 고문과 권순현 전 파종회장도 "대성(大姓)의 위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밖에 좌윤공파종회가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안동시 북면 잣밭길 연원재에서 파조(派祖) 단소(壇所) 고유제(告由祭)와 재사(齋舍) 준공식(竣工式)에 각 파종회장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식사 시간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된장찌개로 저녁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안동종친회 임시 임원간담회 개최



안동종친회(회장 권숙동)는 5월 11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종친회관 2층에서 임시 임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정달 전 대종원 총재를 비롯하여 권중준, 권영수, 권경웅 원로회원, 권인탑 파종회장협의회 고문,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 권중근 시중공파종회장,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종회장, 권중덕 전 시중공파종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회장단,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청장년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권광택, 김대진, 손진걸 도의원 후보, 권기윤, 권기탁, 권민성, 조달희, 안유안 시의원 후보 등 많은 예비후보들이 참석하여 지방선거의 열띤 경쟁을 볼 수 있었다.

이날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권정달 전 총

재는 인사말에서 "오랜만에 안동종친회관을 방문하니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 회관을 지을 때 나는 회관건립 추진위원장으로서 권씨 며느리인 김순숙 여사가 회관을 세울 땅을 허사하고 개인, 각 문중들이 힘을 합해서 이 회관을 지었다"며 회고하기도 했다. 이어 권숙동 회장도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정기총회를 못 열고 임원개선도 하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임원개선을 하여 안동종친회장을 새로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동권문에서 시장 예비후보가 5명이 나왔는데 그 중 한 사람에게 시장후보로 선택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안



동권문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자 "고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나라가 어려울 때 안동사람은 항상 나라를 위해 도와주었다"며 나도 시장이 되면 "청년들로 들썩들썩하는 활력이 넘치는 성장도시 안동을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권광택 도의원 후보, 권기윤 시의원 후보도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임원간담회가 끝나자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점심 식사비로 봉투에 1만원을 넣어 지급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던가?!

정인홍은 임진왜란의 초기에 창의한 후 곧 무계전투(5월27일~6월5일)에 대승을 하여 일본군(倭寇)이 낙동강을 통한 병참보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초계(마진) 전투(6월23일) 후에 진주목사에 제수 되었고, 안연(사원) 전투 후에 7월에 조정의 제용감정(濟用監正)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호남으로 격문을 보내 "영남이 없다면 호남도 없다."고 하여 협조와 구원을 호소하여 호남의 병군이 대거 합천으로 와서 주둔하면서 협동작전을 벌렸다. 3차에 걸쳐 성주성 탈환작전을 벌였는데, 1차(8월21일) 2차(9월10~11일) 3차(12월7~14일)로 왜군을 거의 전멸에 가깝게 무찔러 격퇴하고 왜군이 약탈한 친구의 물건과 무기군마(武器軍馬)들을 노획하였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공화국으로 한국에서의 국리민복(國利民福)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대법원장, 입법·행정·사법부에 속한 국회의원, 국무(부)총리·국무위원(장관), 대법관 이하의 고급공무원들의 사익이나 승진 출세보다도 항상 국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영토보전·자주적안보 등은 공자(孔子)와 제자인 자공(子貢, BC 520~457?)의 정치에 대한 질문에 그 대화에서 알 수 있듯, 백성(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국가와 군주는 존립할 수 없다. 즉식(即食)·즉병(足兵)·민신지(民信之)·*‘논어’ 12~7‘안연’*에 무릇 오늘날 정치인은 여야당과 관·검사, 언론인을 불문하고 국민과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부호장공파종회 제67회 경로잔치 개최



부호장공파종회(회장 권주연) 주최 제67회 경로잔치가 5월 20일 오전 11시 안동시 죽제장길 '낙동강 암소 한 마리' 식당에서 종원(宗員)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해마다 경로잔치는 5월에 개최하였으나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인해 제67회 경로잔치 행사를 취소한 이후 2년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가 3년 째 인을 해 행사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권주연 파종회장을 비롯하여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역대 파종회장을 역임하였던 권중수, 권인호, 권병균, 권영건 등 4명의 고문과 원로회원, 권정수, 권오준 부회장, 부녀회원, 종원들이 참석하였고 특히 국민의힘 당 안동시장 공천을 받은 권기창 후보가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권기윤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권주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경로잔치를 개최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3년 만에 열린 경로잔치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숙동 종친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특산품인 '삼해재래김' 1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주연 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특산품인 '삼해재래김' 1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23)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투표율 77.1%)에서 다음날 야당(국민의힘) 검사총장 출신 윤석열 대선 후보

보가 48.56% 득표율(득표수 16,394,815표)로 여당(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47.83%(득표수 16,147,738표)을 0.73% 약 24만 7천 표(247,077표) 역대 대선 최저차이로 이기고 당선이 되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발족 후에 대통령 취임(5.10)까지 및 최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2박 3일간의 회담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청와대) 출입 이전문제부터 편중된 조각인사, 신사대주와 비자주적인 외교안보 문제와 민생경제 부실 등의 공평정의·민주주의·평화통일 등의 대통령의 현법상 필수직무나 공약에도 없는 강행처리는 언론보도의 가짜뉴스(?)마저도 이제 국민들도 새겨들게 된 것이다.

본 기고문 21회에서 간단히 밝힌 선조

6년(1573) 조정에서 나라의 뛰어난 선비 5인을 추천 발탁한 '오현사(五賢士)'의 한 사람인 내암 정인홍은 동서고금의 역사는 '나라 안에 민중을 탐학 하는 의관을 입은 도적(衣冠之盜: 왕과 관리)가 있은 연후에, 왕과 방패를 든 외국의 도적(干戈之寇)이 침입하여 망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 발발하자 남명문화 동문후배인 의령의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 1552~1617)가 먼저 의병장의를 하고, 정인홍은 같은 동문후배인 고령출신의 송암(松庵) 김연(金鴻, 1541~1593)과 함께 합천 숭의동에서 5월 10일 의병장의를 하였다. 그 후 조정에서 선조(宣祖)가 영남의 병장으로 임명하자, 왜란의 발발하게 된 당시의 시대상황을 평가하면서 약 5천언의 장문의 상소("내암집" 권2, 「辭義將封事」)에서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 문장은 중국 남송(1127~1279) 때

학자관료(예부시랑, 전주·복주의 지주,

호부상서, 한림학사·지재고, 재상급인

침지정사) 출신으로 '주자의 "대학장구"

에 비견할 만하다'는 '대학연의大學衍義'

(조선조의 흥문관 經筵에서 자주 강

독 됨)를 저술한 큰 유학자인 서산(西

山) 진덕수(眞德秀, 1178~1235, 시호는 文忠)가 북송 시대 거란의 요(遼)나라(916~1125)에게 굴욕적 외교와 여진의 금(金)나라(1115~1234)에게 북송이 망했던 역사적 사설(960~1127)을 상기한 것이다. 중국 송나라와 한국의 조선왕조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대제국과 왕조나 공화국(선진국·후진국·개발도상국 관계없이)의 미래의 모습도 똑같거나 거의 유사할 것이다.

이와는 다른 편에서 토정 이지함의 출처, 곧 올바른 선비의 모습과 선정관(善政官, 邦臣···)으로서, 내암 정인홍 '당대 최고의 선정관(暉간현감)을 시작으로 지방관(영천군수, 익산군수) 임진왜란 전까지 조정(사헌부지평·장령)을 벼슬에 소명이 있었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당쟁 최대의 비극인 기축옥사(사화; 1589~1591)에서는 산탈관직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비의 출처(出處)에 벼슬에 나아가는 출사(出仕)나 산립에 남아 제자를 교육하여 후세를 위한 저서(處士)로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모습을 국가의 동량(棟梁)을 맡탁하는, 인재를 뽑은 인사정책에 백세(百世)가 지난 후에도 참고할 만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족보편찬회라고 연락하는 사기행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족친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어떤 사람이 대종회라고 사칭하기도 하고, 족친이라고도 사칭하며 족보를 만든다고 족친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도 보내며, 족보 발행을 빙자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함부로 확인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이를 악용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족친 여러분!

대종회에서는 현재 족보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발행할 계획도 없으며, 발행하여 판매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점 주변의 다른 족친들에게도 전파하여 족보 편찬과 관련한 사기행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 사무실과 원룸 임대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의 사무실과 원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입주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대종회에 소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관공실 임대안내

임대할 부분	면적
사무실 201호	30m ² (약 9평)
원룸 306호	20m ² (약 6평)
원룸 401호	20m ² (약 6평)
원룸 402호	20m ² (약 6평)
원룸 403호	20m ² (약 6평)
원룸 404호	20m ² (약 6평)
원룸 406호	20m ² (약 6평)
원룸 옥탑방	18m ² (약 5평)

◎ 회관 주소: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용두동 102-196)

◎ 연락처: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 제기동역 6번 출구 바로 앞 (1분 거리)

안동권씨 대종회